

# 80%대 높은 투표율 예상...수혜자는 누구?

## 대선 D-1 관련 포인트

### 보수·중도 표심 향배 관련 가짜뉴스·네거티브 변수로

### 劉·沈 최종 득표율도 관심

5·9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5일 사전투표에서 26.06%의 기록적인 투표율이 도출되는 등 선거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 투표율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높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여기에 맞설이는 보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도 관련 포인트며 '가짜뉴스'와 '네거티브성 검증 공방'이 어떤 돌발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도 변수다.

특히, '2악(劉沈)'으로 분류되지만 선전하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높은 투표율 득실은=대선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10년 만에 80%대로 올라설지 주목된다. 최근 세 차례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16대 70.8%, 17대 63.0%, 18대 75.8%로 60~70%대에 그쳤다.

그러나 대선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를 통해 1천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미리 한 표를 던진 만큼 적어도 8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치러진 대선 역대 최고 투표율인 13대 대선 89.2% 기록에 육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황금연휴'에 따른 투표 분산 현상일 뿐이라는 분

석도 없지 않다.

높은 투표율의 수혜자가 누가 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높은 투표율은 청년층의 선거 참여 급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 민심'의 반작용으로 '태극기 표심'을 비롯한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에도 박 전 대통령이 무난하게 당선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보수 표심 향배=보수 및 중도 표심의 흐름은 막판 판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다. 진보 성향 유권자 상당수가 일찌감치 지지 후보를 결정한 반면 보수층은 갈 곳을 잃고 여러 후보 사이에서 떠도는 흐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집권 저지를 목표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깜깜이 모드'로 들어가기 직전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수 표심이 홍 후보로 흐르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런 경향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안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한 중도 표심이 어느 정도 결집할지도 관심사다.

◇네거티브 공방 여파=이번 대선에서는 중도·보수 표심이 어느 때보다 크게 출렁이고 있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중화가 맞물려 '가짜뉴스'와 후보 캠프 간 네거티브 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지난 3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전

후로 미확인 여론조사 결과나 재외국민 투표 출구조사 등의 엉터리 정보가 SNS로 떠돈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가운데 SBS의 '세월호 인양 고지지연 의혹' 보도를 놓고 후보 간에 가짜뉴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표론' 극복할까=바른정당 유 후보와 정의당 심 후보가 막판 상승세를 탄 것이 실제 득표로 연결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포인트다. 사표의 프레임이 넘어진 진보 진영인 심 후보가 많은 표를 얻으면 문 후보가, 유 후보가 득표율을 끌어올리면 안 후보와 홍 후보가 각각 손해를 보게 된다. 만약 대선에서 후보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 이들의 선전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후보 부인들도 한표 호소 전국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하던 대선후보들은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대선후보 부인들도 전국을 돌며 배식봉사를 하는 등 한 표를 호소했다.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산 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 /연합뉴스

## 황권한대행 새 대통령 당선 확정 즉시 사의 표명

### 새 대통령이 총리·장관 사표 수리 여부 결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0일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다.

황 권한대행 측은 7일 "황 권한대행은 9일 대선이 끝난 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을 확정하는 즉시 사의를 표명하기로 했다"며 "새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하면서 사의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의 부처장·차관 역시 황 권한대행이 사표를 제출한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표 수리 여부는 전적으로 새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차원에서 황 권한대행의 사표는 즉시 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에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 행사 '책임총리' 구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신임 총리 임명이 지연되면 내각 구성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어 총리 임명이 늦어지면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무위원 거취는 국무회의 개최 문제

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의 정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18명 등 20명이고, 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인 11명이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임기개시 직후 박근혜정부의 각료를 모두 해임한다면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각 부처 장관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출범 초기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없다면 굳이 국무회의를 열 필요는 없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25일 취임했지만, 국무회의는 2주가 지난 3월11일 에야 처음 열렸다.

한편,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들은 이미 황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을 전해졌다. 이들은 대선일인 오는 9일까지 근무하고 먼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비서실장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0일에도 출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광주 10번 찾은 박영선 민주 선대위원장

### 이틀에 한번꼴 호남 지원 유세 충장동주민센터서 사전투표도

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헌신적인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선 기간 중 이틀에 하루 꼴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광주 지원 유세를 벌이며 문재인 후보를 돕고 있다.

박 위원장은 대선 이틀 전인 7일에 도 광주를 찾아 송산유원지와 강변유원지에서 시민들을 만나 민주당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교체를 호소했다. 이어 광주송정역 앞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와 광주 총력유세를 펼쳤다.

그는 공식 선거전이 돌입한 지난달 17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문 후보 지지유세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꼭 10번째 광주를 찾았다. 선거운동 기간 이틀에 한번 광주·전남을 방문해 유세를 펼칠 정도로 야권 심장부인 호남에 공을 들였다.

박 위원장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녹록지 않았던 광주·전남에서 문 후보

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첫주에는 거의 매일 지원유세를 펼쳤고, 지역 곳곳을 찾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박 위원장은 특히 주소지가 서울시 구로구임에도, 광주·전남의 사전투표율을 높이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4일 새벽 KTX 첫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와 동구 충장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이게 나라'라는 국민들의 절규로 만들어진 선거"라며 "문재인 후보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 주시길 당부한다"며 "호남이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文-洪 '서울대첩', 安 대전서 4차산업 강조

### 후보들 마지막 유세 어디서

### 劉 광화문 이순신동상서

### 沈 강남역~노량진~신촌

5·9 조기대선 선거운동 종료일이 7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는 8일 마지막 유세지로 서울 광화문 광장을 택했다. 광화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동력이 됐던 '촛불민심'의 집결지다. 문 후보 선대위 전변형 전략본부장은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

서남북에서 모인 국민통합의 열망을 잘 어우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후보는 광화문 집중유세 후 선거운동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강남을 찾은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원의 중심지인 대전을 마지막 유세지역으로 정했다.

안 후보 측은 "지정학적 중심에서 동서지역을 통합하고 대덕연구단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으로 대표적 과학기술 중심도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마지막 유세지는 서울역 광장이다. 홍 후보 선대위 측은 홍 후보가 청원의

꿈을 안고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역을 통해 귀경했다는 의미와 함께, 시통팔달의 서울역은 대한민국의 소통과 화합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을 마지막 유세지로 검토 중이다.

유 후보 선대위 측은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 때 장수들이 성과 진지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승리를 거뒀듯, 기존 거대정당보다 규모가 작은 바른정당과 유 후보가 기적을 국민과 함께 이뤄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과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마무리 유세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남역·건대입구역과 노량진 고시촌을 거쳐 신촌을 도는 마지막 유세일정으로 검토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싸고, 투자가치 전망있는 물건, 매매. **친절상담 H. 010 - 3605 - 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

## 거문도, 팬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1 - 1번지 - 49평
- 1260 - 2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상담후 결정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임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들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 광양, **싼**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